

쓰레기 종량제의 시범 실시

방 인 석
잠 실 5 동 사 무 소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6 개 동이 종량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종량제 시범동으로 선정된 3 개 구청 6 개 동은 아래와 같다.

- 상업 지역 : 중구(태평로1가동, 소공동)
- 일반 주택 지역 : 성북구(성북1동, 성북2동)
- 아파트 지역 : 송파구(문정2동, 잠실5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함)의 주관 부서인 환경처에서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서 개선점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하고자 전국 33 개 시, 군, 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종량제의 정의와 목적

기존의 통합공과금으로 납부하는 폐기물 수수료는 재산세 또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률제임에 반해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따라서 종량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와 수수료의 연차적 현실화로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종량제를 이행하려면 우선 분리 수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규격봉투의 사용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잠실5동 지역에서의 시행 사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잠실5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 구 : 약 1만 7,000 명
거주 세대 : 약 4,500 세대
거주 연령 : 40대의 가정이 비교적
 많이 거주
주거 현황 : 1 개 단지 30 개 동 (32,
 34, 36 평형)

시행 초기에 주민들은 종량제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종량제 실시의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귀찮다는 불만의 여론이 아주 강했다.

洞사무 측면에서도 규격봉투를 배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각 가정별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었지만 세대별 거주 인구수가 파악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규격봉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각 가정별로 규격봉투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이 따랐다. 직원들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규격봉투를 배부하였고 빈 집은 두 번, 세 번 방문하여 수령 확인 도장을

받으며 배부를 하여야 했다. 또한 주민등록상 인구 수에 맞게 수령한 규격봉투도 부족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잠실5동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의외로 많았고 주민들이 봉투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령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세워 놓은 배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혼란이 올 것 같아 시범 실시 기간 중 파생되는 문제점은 하나하나 보완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하였다.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구청에 보고하여 기존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행정 공무원들의 고충도 컸지만 더 큰 문제점은 주민들에게 종량제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종량제의 개념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량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를 개최하자 주민들은 종량제를 이해는 하였지만 많은 불편을 토로 하였고, 시범동으로 선정된 그 자체에도 불만이 대단히

많았다.

그러나 쓰레기를 줄이지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두 차례의 설명회 이후 전주민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실시 방법, 분리 수거 요령 등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아침 안내방송 및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자 점차 주민들은 본 제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종량제를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몸에 배어 있는 생활 습관을 단시간에 고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레기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과, 쓰레기를 가정에서 일단 밖에 내어놓으면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활 습관은 쉽게 변화될 않았다. 더구나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당신이 뭔데 남의 쓰레기를 살펴보느냐”는 등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종량제의 실시 전 날 일어난 해프닝이 있다. 종량제 시범 실시 전 날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과다 투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피가 큰 대형 생활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는 등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 직원이 비상 동원되었고, 구청 청소과의 차량과 청소대행업체 차량으로 모든 쓰레기를 밤을 새워 이튿날 아침까지 모두 수거하였다.

순직원의 노력으로 평소 3~4 배 가량 배출되었던 쓰레기를 100% 수거한 후 곧바로 주민 협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아파트 입구에 한 개씩 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쓰레기 박스)에서 근무하며, 일반 봉투 사용시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경고문을 컨테이너 박스에 부착하였다.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였고 모르는 가정에 대해서는 홍보 및 설명을 다시 하였다.

하지만 규격봉투의 사용률은 극히 저조하였고, 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종량제를 반대 하였다.

시행 초기에 발생한 주민들의 주요 건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규격봉투의 재질이 너무 얇다.
- 봉투가 너무 투명하여 내용물이 훤히 보여 창피하다.
- 봉투가 적은 관계로 쓰레기를 가정에 2~3 일씩 방치하여 악취가 심하다.

모두가 우리의 음식문화와 직결되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량제 실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실시에 어려움은 따르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실패해서도 안되는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종량제 실시에 성공하여 보자.”,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화를 정착시켜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자.”라고 홍보를 거듭하였으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주택구조상 아파트 1 개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1 개씩 배치되어 있어서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구별이 어려웠고, 일부 주민의 “나 하나쯤이야 어떡랴”는 생각 때문에 제도를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수선하고, 분리수거 교육을 하고 야간에 공무원의 집중적인 계도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실시 이후 20여 일이 지나서는 규격봉투의 사용률이 80% 정도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분리수거를 잘 하는 덕분에 쓰레기 감소 현상이 뚜렷하여졌다. 분리수거

품목은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종이류, 캔류 등으로 이들을 규격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홍보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를 원하고 있다. 규격봉투를 적게 써야만 추가용 봉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추가 봉투 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가정용 추가 봉투 (20L, 10매)
1,900원
- 사업장용 봉투 (20L, 10매)
1,500원

위와 같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닌 봉투 값 때문에 가정주부가 쉽게 사 쓰기에 부담이 된다. 봉투 가격이 비싼 이유는 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부들은 너무 턱없이 비싸다고 걱정이다. 그래서 이미 배부한 봉투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더욱 잘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로폴 같은 품목은 분리수거가 곤란하다. 구청에서 수거하긴 하지만 일반 폴리에틸렌은 재활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수거에 불편이 따른다. 종량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1회용품 사

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자제해야만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실시 지역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다. 아직 한 건의 과태료 처벌도 없이 현재 85% 정도의 규격봉투가 배출되고 있다. 단속 차원이 아닌 홍보 및 계도의 실시만으로 주민의 85%가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수준이다.

자율적인 참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는 결코 아니며 순직원과 통·반장이 끊임없는 참여와 홍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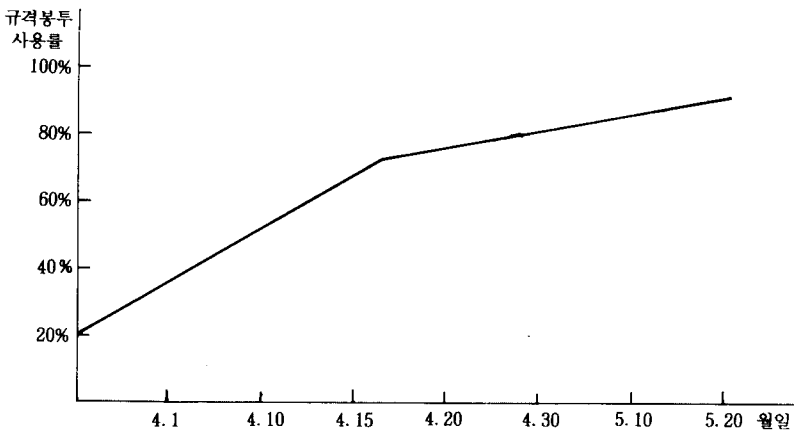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참고로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률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자율적인 수준은 한계가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처벌이 가하여지면 85% 이상 수준은 바로 달성될 것이다.

종량제 성공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세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걱정하는 환경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쓰레기(90%)를 매립하는 차원에서 청소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의 오

<그림 1> 규격 봉투 사용률



염과 매립 이후의 공해 문제를 감안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식인 철저한 분리수거와 소각 방식, 에너지 재활용 방법을 우리도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소각로 좀 건설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쓰레기 처리도 선진국화되어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종량제 실시를 위한 실천 사항

○ 강력한 단속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 규격봉투 未사용

○ 對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환경 및 청

소 문제 교육

-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 정신 고취
- 최근 生水 시판과 관련된 PET병 사용 억제
- PET, PP, PE 등 사용 자제
- 백화점 및 유통업소의 과대포장 자제
- 재활용이 불가능한 목재류, 폐종이류, 1회용품, 비닐봉투 전면 소각
- 재활용품은 자원이라는 인식의 고취
- 비닐봉투 제조 및 판매 행위 억제
- 공장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오염 유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지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실시되어 정착되기까지는 각종 행정상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불만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범 사례를 통해 볼 때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